

“광주·전남 행정통합, 청년 일자리 확대 연결해야”

광주경총 “재정·시장 규모 개편에 앞서 정책 설계 중요”

통합특별시 차원 ‘청년고용 의무·인센티브 패키지’ 제안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제계에서 통합 효과를 청년일자리 확대로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시장 규모 확대가 단순한 구조 개편에 그치지 않고 청년에게 체감되는 고용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책 설계 단계부터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전제로 할 경우 청년일자리는 통합으로 늘

어나는 재정과 시장 규모를 청년 친화 구조로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을 우선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 논의가 재정 효율이나 행정 체계 개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광주경총은 우선 통합광역경제권을 전제로 한 대규모 투자유치와 산업 집적을 통해 질 좋은 상용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동시에 통합 재정 규모로 거론되는 연 5조원을 청년고용 인센티브와 인력양성

분야에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투자 정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는 통합특별시 차원의 ‘청년 고용 의무·인센티브 패키지’ 설계를 제안 했다.

빛그린산단, 에너지밸리, 여수국가산단, 첨단3지구 등 통합 산단에 입주·증설하는 기업에 청년 정규직 채용 비율 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과 연동하는 방식이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문화콘텐츠 등 핵심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청년전용 트랙’을 뚫어 자정·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전문연구직, 청년 산학 장기인턴, 청년 창업보육센터를 하나의 패키지로 운

영하면 통합 효과가 청년에게 직접 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청년정책의 통합·고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행정통합 시 광주와 전남이 각각 운영해온 청년고용·창업·주거·교육 사업을 ‘통합 청년정책 패키지’로 묶어 중복을 줄이고 재원을 확대한 뒤 통합권역 전역에 동일 기준으로 제공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와 같은 재직 청년 적립형 사업을 전남까지 확대하고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자체가 함께 적립해 만기 시 목돈을 지급하는 구조를 통합권역으로 넓혀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자는 취

지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청년일자리 지원과 주거정책, 문화·복지 사업을 통합권역 전제로 확장해 ‘일자리+주거+생활’ 패키지로 제공하면 지역 이탈을 줄이고 인근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용, 교육·훈련, 창업·금융·공제, 주거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 청년플랫폼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 청년일자리 확대는 통합 특화산업과 연계한 청년 의무고용·인센티브, 기존 청년정책의 통합·확대, 통합 인력양성 체계, 주거·복지와 결합된 정착 패키지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정작·주거·복지와 결합된 일자리 패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 지원
중기부, ‘스케일업’ 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첨단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주관기관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지역 첨단 제조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시험·설증과 투자연계를 포함한 ‘첨단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사업’을 2026년 새롭게 시작하고 오는 25일까지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첨단 제조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시험·분석 장비, 전문 인력, 실증 환경 등 제조·기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했다.

각 지역에 구축된 인프라를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연계함으로써, 스타트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 부담을 완화하고 제품 성능 겸증과 기술 고도화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스케일업 사업은 지역별 산업 구조, 스타트업 분포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중기부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 기반과 스타트업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스케일업 지원 모델을 구현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크루르제 ‘핑크 페스타’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르크루제 매장에서 핑크색 키친웨어를 선보이고 있다.

정재현 SKT CEO, 광주 찾아 결속 다져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지역본부 방문

SK텔레콤의 정재현 CEO가 지난달 29~30일 현장경영에 나서 광주를 비롯한 대전, 대구, 부산 등 4개지역본부 구성원들과 소통했다.

SK텔레콤은 2일 정재현 CEO가 지난 1월 29~30일 지역 본부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드림팀(Dream Team)’으로 하나 되는 결속을 다졌다고 밝혔다.

정 CEO는 이를 동안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등 4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임원·팀장 티 미팅, 구성원 간담회, 안전·환경(SHE) 점검 등 일정을 소화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정 CEO는 이번 MBWA(Manage ment By Walking Around, 현장경영)를 통해 “SKT의 중심은 구성원 여러분

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품질, 보안, 안전 등 기본과 원칙에 충실히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 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정 CEO는 대전 지역 방문 일정 중에는 유통망인 PS&M 둔산본점을 직접 방문해 대리점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실제 고객 응대 현장을 살펴봤다.

각 지역본부 별로 구성원과 대화 시간도 마련돼 CEO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현안과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통신 설비와 데이터센터, 전송장비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환경 점검도 병행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제1회 G-RISE FESTA 개최

광주RISE 성과 공유…소통의 장 마련

5일부터 DJ컨벤션센터…지역 17개 대학 참여

지역과 대학이 함께 만든 ‘혁신적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이어 2시에는 광주시장, 17개 지역 대학총장, 광주시교육청 교육감, 국회 의원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하여 개막 포면스, 유공자 표창·시상식 등 개막식이 열린다.

또, 인기 유튜버 ‘궤도’ 초청 강연, 대학별 RISE 우수성과 발표, 토크콘서트 등 소통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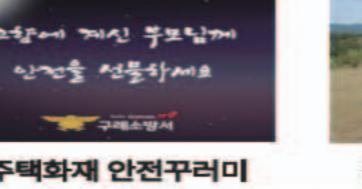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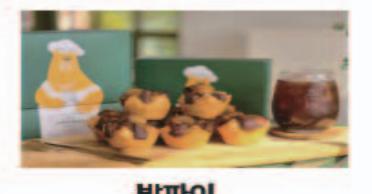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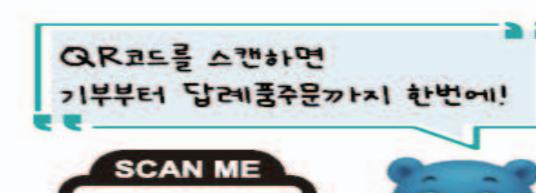
행사기간 내내 대학별 RISE사업, 글로컬대학 등 성과전시관과 지역 우수기업 및 혁신기관 등 홍보관이 운영되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부스 운영, 각 대학의 특성을 살린 20여 개의 부대행사가 세미나·곳곳에서 진행된다.

김보현 광주RISE센터장은 “이번 G-RISE FESTA는 지방정부와 대학이 원팀이 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동반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대학의 혁신 성과가 지역산업과 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첫날인 5일 1시 30분부터 사전 행사로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5국3특별위원회 위원장의 ‘5국·3특 균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구례군 고향사랑기부제로 연말정산과 명절선물을 한번에 해결하세요



SCANNING ME



구례군청 총무과
061-780-2307

구례사랑상품권